

하나됨과 나눔

“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

< 마태복음 28장 10절 >

- 공동체지도력훈련 67기 수료자들을 축하합니다.
권재만 김성기 김예지 박예나 윤경옥
이돈희 장미숙 장성아 전경희 최연우 (10명)
- 생활공동체 휴가기간은 8월 1일(월)부터 20일(토)까지이며, 이 기간 중에 개인 또는 가정별로 10일간 계획합니다. 교회생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다 함 께

강단을 꽃으로 : 이윤지 · 밀로 텔레스코 (감사)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9 - 31 호

2022년 7월 31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2022년 여름공동체생활의 풍경

코이노니아 첫 번째 시간 [첫째날 저녁]

본문 : 민수기 20:1~13

관찰 :

38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데스는 예전 정탐꾼들을 보냈던 곳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물이 없음을 한탄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회중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해석 :

10절에 모세가 총회에게 말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나”를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땐,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적용 :

1.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지 맙시다 [골1:28~29]
2. 나를 죽여야 합니다. [마16:24, 고전15:30~31]
3. 나를 우상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코이노니아 두 번째 시간 [둘째날 저녁]

본문 : 민수기 16:1~35

관찰 :

가나안 정탐의 실패[민 13~14] 후, 아직 그 슬픔과 광야 생활의 지침이 가득하여 불만을 이야기 합니다. 우두머리를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자! 외치고 있습니다.

해석 :

이 사건의 주동자인 고리는 레위인이며 모세의 친인척입니다. 그는 아론에 다음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으나 대제사장을 하고 싶어합니다. 다단과 아비람, 온은 르우벤의 자손들입니다. 그들은 장자지파였지만 르우벤의 실수로 그 위치를 가지지 못했습니다[창 49:4]. 그들은 모세가 가진 힘을 빼앗기 원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6절은 이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에 충실하면 저절로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자리에 욕심을 내지 말고 감사하며 충성합시다.

적용 :

1. 지체를 서로 인식합시다. [고전12]
2. 자기자리의 역할에 충실합시다. [롬12]
3. 서로 존중합시다. [엡4:2~3]

오랫동안 모이지 못하다가 다시 모여 여름공동체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교육공동체 사역자이신 정다운 전도사님의 인도로 찬양을 하였고, 교육공동체 위원장이신 서병욱 집사님과 감사위원이신 조장희 집사님께서 기도 해주셨습니다. 정태일목사님의 인도로 말씀을 들으며 작은 모듬으로 나눔도 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저녁 늦은 시간까지 교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연령별사랑방이 각자가 알맞은 방법으로 별도의 즐겁고 뜻 있는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한 모임을 누리는 주일 공동예배로 모여 함께 성찬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며 물질을 나눕니다. 함께 모여 공동체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권재만 목사

한주간의 말씀

<수요기도회>

성경 : 신명기 15장

제목 : 억눌린 자를 해방시키시는 하나님

인도 : 정재훈 목사

기도 : 김성기 집사

찬송 : 200 406 446 436

1. 내용관찰(What)

<문단구분>

1~11절 동족의 빚을 면제하는 규례

12~18절 종들에게 자유를 줄 때의 율례

19~23절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대한 율례

2. 내용의 의미(Why)

가난한 사람을 위한 율례들입니다. 빈부의 격차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땅을 기업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우리는 빛진 자들에 대해서 모질게 대하지 말고, 은혜로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먹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3. 의미의 적용(How)

- 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베풀자.
- ② 주일 예배와 공동식사의 의미를 알고 정성으로 참여하자.

고진감래를 향하여

고진감래란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즉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의미입니다. 참 희망적인 말입니다.

저는 공동체지도력훈련 67기생입니다. 이번 공동체지도력훈련은 멤버가 10명으로 단출하지만 속이 짝 찬 사람들이 함께한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각자의 개성과 삶의 연륜이 다양하여 더 좋았습니다. 그 안에서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함께 보는 듯했습니다.

제 나이 지천명에 이르러서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알아갑니다. 전 참 느린 사람입니다. 생각, 행동, 일, 관계 등등 모든 면에서 민첩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꾸지람과 오해와 상처를 받았습니다. 때론 피하고 싶고 숨고도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맞서야 하는 세계인지라 그냥 나를 낮추며 살았습니다. 젊어서 참 많이 아팠습니다.

지금은 내가 살 길을 알아가는 중입니다.^^ 나에 대한 다른 이들의 의견이나 이견이 그럴 수 있다고, 그리고 '그렇구나'라고 나를, 그들을 인정합니다. 그러자 오히려 나를 드러내려 할 때보다 내가 덜 힘이 들고 편안해졌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 땅 위의 공동체, 곧 교회입니다. 이곳엔 나를 비롯하여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생각과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각의 재능도 갖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이 함께할 때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공동체를 위해 나를 조금씩 양보하며 다른 사람들과 맞추려 할 때 공동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버리는 일 참 힘이 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나를 내려놓은 그 자리에 성령님이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합니다. 함께할 때 더 기쁘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서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진감래가 이루어지겠죠^^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태일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초청의 말씀	민수기 6 : 24-26	인도자
* 예배의 찬송	28	다함께
* 기원의 기도		인도자
* 기원찬송	영광 영광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참회의 기도	갈라디아서 2 : 20	인도자
* 용서의 말씀		다함께
* 신앙고백	620	다함께
고백의 찬송		다함께
공동기도		다함께
목회기도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여호수아기 7 : 1-26	설교자
성가대 찬양	393	67기 수료자
설교 “ 개인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라 ” 정태일 목사	< 성 찬 식 >	

의탁과 섬김의 삶

의탁의 기도	설교자
응답의 찬송	다함께
* 봉헌기도	인도자
* 영광찬송	다함께
* 위탁의 말씀	설교자
* 강복기도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최상득 백성복 / 봉헌위원 : 임상희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공동기도문

창조주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도 여름공동체생활을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갈릴리에서 만난 제자들처럼
저희도 위로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개인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라

이스라엘의 아이성 전투 패배. 이스라엘 공동체는 광야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큰 성이지만 믿음으로 승리하여 무혈 입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투는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아이성은 작았고, 그래서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은 당연한 듯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였습니다.

아간의 범죄, 개인주의 때문에. 여호수아가 원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11> 아이성의 패배는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개인적으로 취했던 것입니다.

개인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앙공동체가 성숙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려면 지체들의 개인주의를 배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동체가 신앙적 삶의 터전이라는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과정에서 개인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생활을 우선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특별히 돈의 사용에 있어서 개인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권재만 목사 / 기도 : 김순정 집사

꾸러기학교와의 1년 반

“그의 행복을 기도드리는 유일한 사람이 되자.

그는 살아가고 싶어서 심장이 팔딱거리고 눈이 눈물처럼 빛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나의 그림자도 아니며 없어질 실재도 아닌 것이다.

그는 저기 태양을 우러러 따라가는 해바라기와 같이 독립된 하나의 어여쁘고 싶은 목숨인 것이다“

학교를 둘러싼 풍경들이 낯설지 않았다. 오래된 사진들처럼. 내가 자랐던 그 곳과 닮아 있었다. 여름이면 냇가에서 붕어를 잡고 봄이면 분홍빛 진달래로 가득한 앞산을 뛰어 오르며 나는 그렇게 자랐다. 지산이는 세상을 만난 후로 지난 5년간 줄곧 아파트 숲 사이에서 살았다. 앞으로도 오랜 시간 그렇게 지내야 할지 모른다. 아내와 나는 그것이 못내 마음이 쓰인다. 그래서 더 기뻐할 것이다. 꾸러기 학교에서 땅을 밟던 첫 순간이.

아이들이 앉는 작은 나무의자에 앉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학교는 어떤 곳인지. 어떤 역사가 있었고 그 역사 끝에 지금이 있고.

인간의 세상에 없던 것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없다. 그리고 새롭게 생겨난 그것이 세상과 사뭇 다른 무엇이라면 더욱더.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시간을 갈아 넣을 때 비로소 세상과 다른 새로운 것이 생겨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곳을 만난 것이

기쁘면서도 왠지 모르게 조금 마음이 무거웠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이야기 나누던 기억이 난다. 기뻐했다. 우리가 찾던 곳을 만났다고.

학교는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그대로였다. 지산이는 친구들과 함께 밭을 일구고 숲길을 걸으며 물장구치며 놀았다. 친구들과 갈등을 해결하는 법도 배웠고 다른 사람을 걱정하며 기도하는 법도 배웠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법도 배웠다. 글을 외우는 것도 배웠고 노래 부르는 법도 배웠다. 지산이와 함께하는 친구들, 지산이 친구의 가족들, 지산이와 함께 해주시는 세분의 선생님들, 전향옥, 정승희, 이어람. 그리고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공동체의 식구들에게 감사한다. 마신 물 컵을 정수기 옆에 쌓아두는 지산이를 보며 돕는 손길이 이 곳 저곳에서 지산이의 삶을 감싸고 있음을 생각했다.

지산이는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지난 1년 반을 자라왔다. 나는 그것을 하루하루 지산이의 말과 표정에서 느꼈다.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은 지산이의 말과 표정과 삶속에 담겨있다. 그 수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하면서, 나는 여전히 처음 학교를 만났던 날의 마음을 가슴 한쪽에 가지고 있다.

지산이가 자신의 친구들과 선생님과 학교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이리라. 받은 사랑으로 다져진 땅위에서 독립된 하나의 어여쁜 목숨으로 우뚝 서 가는 그가 되기를. 받은 사랑을 세상에 주는 그가 되기를.

감사합니다.

인간은 꿈의 세계에서 내려온다.

여름공동체생활 둘째 날입니다

코로나도 다시 유행하기 시작하고, 3박 4일을 완전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픈 날들이 지나고 나서 썰렁해진 교회에서 다시 '옛날의 영화'같은 여름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게 아직은 이르다는 생각도 조금 들고-암튼 주어진 일에만 충실하자는 생각으로 어제 첫날을 맞았습니다. 별로 기대하진 않는다는 마음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감자를 삶으러 교회에 갔는데 사무실이 시끌벅적했습니다. 교육위원회와 젊은이들이 준비를 하려고 모여 있는 모습에 놀라웠습니다. 바쁘고 덥고 도무지 일할 사람이라고는 사무실 권사님과 교역자 몇이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찬양이었습니다. 다 함께 부르는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공동체생활에서는 찬양이 잘못되면 마음이 모아질 때까지 찬양하곤 했었습니다. 처음 찬양이 끝나고 목사님께서서는 찬양이 어땠을 거 같았냐고 물었습니다. 과거, 이 질문은 항상 찬양이 맘에 들지 않았을 때 하는 목사님의 '찬양 길들이기'의 시작 멘트였었던 걸 생각하고는 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난 찬양하면서 참 좋다고 굉장히 강하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내 목사님은 찬양이 좋았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맘에 좀 안 드신 부분이 있었는지 85점을 주셨고, 난 속으로 이번엔 90점은 주셔도 좋을 만큼이었는데 하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이어 (민수기 20장) 말씀을 보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에서 '우리=나'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범죄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잘못 생각하기 쉬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내 우리는 모두 말씀 속에 깊이 생각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아,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여름공동체생활을 고대했었는데 그동안 이것도 잊었었구나!

그러면서 헤어진 하나하나의 얼굴들이 떠오릅니다. 같이 울고 감격했고 뜨겁게 안았던 그 얼굴들. 하나님 앞에서 서로들 죄인이었고, 그리고 부족하고, 또 그래서 그만큼 잘났고 사랑스러웠던 얼굴들.-오늘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교회로 출발합니다.

그루터기사랑방 전경희 집사

<수요 정오기도회>

말 씬 : 마태복음 18:23~35절

인 도 : 정재훈 목사

기 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기후재앙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기도>
기후의 변화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권세있는 자나 소외된 사람이나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후변화에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가난한 노약자나 어린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입니다. 코로나와 전쟁 때문에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시금 각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 한국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해세드 공동체를 위한 기도>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오실 구주 예수님을 맞을 준비로, 세속의 흐름에 저항하는 자발적인 소외의 삶을 선택하며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웃들의 짐을 함께 지고, 위급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응급실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교회를 위한 기도<지체들을 위한 기도>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하는 여름공동체생활 준비를 위해서, 공동체 내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활공동체 소식 >

장마 끝에 여름의 뜨거운 열기를 실감하는 한 주였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였지만, 하늘에는 뭉개구름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흰 구름 뭉개 뭉개~~~ 예전 여름 성경 학교 주제가가 저절로 나오게 하는 하늘 풍경입니다. 여름공동체생활을 준비하면서 제초 작업도 벤치도 재정비하고 주방에서는 간식 준비와 주일 식사 때 먹을 김치 담그기로 분주하였습니다. 연령별사랑방 교사들은 주 중에 계속 만나 어떻게 하면 연령별들을 재미있게 해줄까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여름공동체생활이 시작되고 식구들이 모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몸으로 경험하는 공동체생활만큼 그리스도인으로 함께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보는 뜻깊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 장영미 전도사 >